



요트 정현민-최성철, 김대영-정성안 '태극마크'

〈여수고〉

〈여주시청〉

내년 아시안게임 한국대표 출전

정현민-최성철(이상 여수고)과 김대영-정성안(이상 여주시청)이 2010년 광주아시아안게임 요트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정현민-최성철은 11일 열린 아시안게임 요트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마지막 날 남자 420급 경

기에서 우승, 아시안게임 티켓을 거머쥐었다.

남자 470급 경기에선 김대영-정성안이 이번 대회에서 2위에 그쳤으나 종합점수에서 1위에 올라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하게 됐다.

하지만(한국해양대)은 남자 레이저급에서 벌점 15점으로 우승했다.

남자 RS : X급에서는 이태훈(해운대구

청)이 1위를 차지했고 남자 미스트랄급 송명근(전북협회)도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대한요트협회는 "1998년 방콕,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씩 따내며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로 부진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를 일찍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U-20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귀국을 하루 앞둔 11일(한국시각) 이집트 수에즈 스타레 디 마레 숙소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다 흥분보 감독을 흥해바다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해 행복했다”

홍명보 號 오늘 귀국 “이젠 소속팀 활약이 중요”



200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청소년 대표팀을 8강으로 이끈 홍명보(40) 감독은 사령탑으로 참가한 큰 국제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얻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젊은 태극전사들이 한 차원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홍명보 감독은 11일(한국시각) 선수단 숙소인 이집트 수에즈 아인소크나의 스타레디마레 그랜드호텔에서 U-20 월드컵 결산을 겸한 인터뷰를 통해 8강 진출에 앞장선 선수들과 묵묵히 도와준 코칭스태프 및 지원팀에 고마움을 전했다.

홍 감독은 대회를 마무리한 소감을 묻는 말에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이겨내 주고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운을 떼고

나서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 팀에 스타 선수도 없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이끌 어갈 재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훌륭한 선수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면서 앞에서 보좌한 코치 정원민, 김대영 코치와 신의손 필리퍼 코지, 선수들의 강철 체력을 완성한 이계대 세이코 피지컬 트레이너의 도움이 컸음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 선수들과 대면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해 강당에서 선수들을 만났을 때 설렘과 기쁨, 즐거움이 교차했다”면서 “고민거리도 있었지만 그 선수들과 보낸 시간은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수들이 7개월 동안 발전했고 큰 무대에서 뒀던 경험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다.

선수 때 경험을 살려 젊은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춘 팀 운영에 신경을 썼다는 그는 “선수들에게 축구 기술 이전에 올바른 자세를 먼저 가르쳤다. 자신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이후 축구 방법을 가르쳤다. 짧은 기간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제는 어떻게 경기를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 수훈 선수를 묻자 “한 선수를 꼽기는 그렇고 골 넣은 선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지만 수비진 네 명과 문키퍼, 구차철이 팀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상대를 맞아 제 뒀을 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싸워준 선수들의 활약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표팀은 시간과 싸움이다. 짧은 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우리 선수들이 소속팀에 돌아가 얼마나 자신의 기량 향상을 꾀하는가에 따라 대표팀 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각) 새벽 이집트 수에즈 무바라크 스타레디움에서 끝난 가나와 2009 U-20 월드컵 8강전에서 박희성(고려대)과 김동섭(모수시마)이 골을 넣었지만 가나의 투블 스트라이커 도미니크 아디아(2골)와 랜스포드 오세이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2-3으로 석패했다. /연합뉴스

홍명보 號 4강 실패 U-20 월드컵 가나에 2-3 석패

한국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의 북부 가나에 발목을 잡히면서 26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에 실패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0일

상무 '6강 티켓' 가물가물

성남에 3-2 역전패...전남은 포항 1-0 꺾어



갈 길 바쁜 광주 상무가 6강 경쟁에서 한 걸음 더 물러났다.

광주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9 K리그 27라운드 성남 일화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최성국과 김병중이 낙담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두 골차로 앞섰지만 바로 몰리나, 김성환에게 연속골을 내줘 전반을 2-2로

마친 뒤 후반 20분 한동원에 역전 결승골까지 헌납하며 주저앉았다.

광주는 최근 5연패 포함, 12경기에서 1무 11패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10위(9승3무13패·승점 30)로 밀려나 6강 진출이 힘들어졌다.

전남은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철가맛대결'에서 후반 17분 슈바의 결승골로 포항을 1-0으로 눌렀다. 포항은 정규리그 무패

행진을 15경기(10승5무)에서 끝내면서 3패를 안았다.

전북 현대는 강원FC를 꺾고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전북은 이날 원정경기에서 브라질리아가 혼자 두 골을 몰아넣고 최태욱이 한 골을 보태 강원에게 3-1로 이겼다.

최근 정규리그 4경기 연속 승전가를 부른 전북은 승점 50(15승5무5패)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르면서 이날 경기가 없었던 FC서울(15승3무7패·승점 48)을 끌어내리고 다시 1위가 됐다.

경남FC는 상생세의 대구FC를 거창 스포츠파크로 불러들여 전반 6분 만에 터진 이용래의 프리킥 결승골을 시작으로 전반 26분 김동찬, 후반 36분 김태욱이 골 잔치에 가세해 3-0 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무명 맹동섭 '그린 반란'

조니워커오픈 생애 첫 우승

맹동섭(22·토마토저축은행·사진)이 한국프로골프(KPGA) SBS코리아투어 조니워커 블루리벨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맹동섭은 11일 제주 라운골프장 스톤-레이크 코스(파72·총186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네 명이 연장전을 치르는 접전 끝에 유일하게 버디를 낚아 정상에 올랐다.

전날까지 10언더파 206타를 치며 단독 선

두를 달린 맹동섭은 2007년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지난해 2부 투어인 캘러웨이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하며 삼강왕을 차지했다. 캘러웨이 인스클 3위로 올해 정식으로 프로에 입문한 맹동섭은 지난달 메리츠솔로오픈 23위가 최고 성적일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다.

맹동섭은 “어제 잠을 설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연장에서 '내 플레이만 하자'고 생각 없이 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올해 신인왕을 목표로 남은 대회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체급별 세계 최강자 가린다

14일 덴마크서 세계선수권대회 개막

‘국기(國技)’ 태권도의 체급별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2009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오는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막을 올린다.

남녀 각 8체급에 143개국, 1천11명(남 604명, 여 407명)의 태권도인들이 출전해 코펜하겐 빌라를 슈퍼 아레나에서 닷새간 열전을 벌인다.

남자 19회, 여자 1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까지 5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살아남은 태권도가 세계적인 격투 스포츠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일종의 시합을 치르는 무이다.

‘재미없고 판정사비가 끊이지 않는 종목’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자호구와 즉석 비디오판독 시스템, 차등점수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12일(월)

-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신한은행〉 (16 : 50·SBS스포츠)
-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야쿠르트〉 (18 : 00·SBS스포츠)

인터넷에서 만드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금산공인중개사
T.081-5886 H.011-601-5354
(금호동 서광주역 건너 2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중심 상임용지 (C1지역)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해지빌딩 옆(4면 광로변)
대지
약 28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광주 최고의 상권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첨단OK공인중개사 김병준
T.971-0150 H.011-639-5592 (첨단지구 쌍암호수공원옆 모아아파트상가 105호)
▶ 수원지구 대지
-상업용지 : 753㎡ -매가 : 6억 8,400만
▶ 첨단지구 대지
-상업용지 : 435㎡ -매매가 : 3억 5,000만 -금액 (3.3㎡당 270만원) 공사비가보다 저렴(롯데슈퍼 인근)
-상업용지 : 380㎡, 매매가 : 4억원 3.3㎡당 350만원 (영파호텔 인근)
-상업용지 : 280㎡, -매매가 : 2억 5,200만원 (3.3㎡당 300만원)
▶ 자연녹지 매매
-임야 : 4,620㎡(1400py) -매매가 : 11억원 2천(분할가능)
▶ 투자빌딩 매매
-대지 : 1,891㎡, 건물 : 3,412㎡ -매매 : 4.5억, 용차 : 17억 -보증금 : 14억, 월세 : 2천만원 -대지 : 463㎡, 건물 : 1,829㎡ -매매 : 1.5억 3천만, 용차 : 7억 5천만 -보증금 : 1억 1천만 -월세 : 7백 20만원 (공실없음)
NAVER 첨단지구 www.gscity.co.kr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 광주 북구 태평동 영락공원 부근
-대지 884㎡ (281평) -매매가 3,500만 -현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내, 민원소지 없음 -도로질, 기숙사 및 주말농장 적합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대지 104,727㎡ (32,000평) -매가 22억 2천만원 -관리지역 일부포함, 자연계곡 및 저수지, 원형 전나무 삼나무, 목장농지 가능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지리
-대지 및 빌딩 73,000평, 평당 1만 2천원 -도로질 임야이며 현 수령높은 편백나무 숲, 담토지에 80평집중적, 별장소재
▶ 전남 담양군 원산리 원거리
-대지 1,670평 평당 10만 -계획관리지역 약 800평포함, 차령전입가능, 전망권양호, 시설 및 전원주택지 적합
▶ 전남 담양군 남원 현리
-대지 및 전 633㎡ (300평), 평당 300만 -담양댐이 바라보이는 주변, 전망이 매우 양호, 실사용용 9600평 -내부 건축가능한 대지(100평)포함되어 전원주택 및 시설기초적함
▶ 담양군 금성면 봉림리
-대지 450,188㎡ (13,042평), 평당 225천원 -2차선포장도로에 약 100㎡, 관리지역 95천평, 지형 완경사이며 전망권양호. -민원소지없음 각종시설, 관광 및 목장농지 가능
▶ 담양군 금성면 대지리
-대지 500평 및 1,000평, 평당 25만 -2차선도로와 접해있으며 전원주택, 공장, 창고도 적합
▶ 전남 담양군 대면리 입석리
-대지 53,487㎡ (16180평), 평당 225천원 -대형차량 진입가능, 토질양호 도시기공 포함, 민원소지없음
▶ 전남 담양군 원산리 원거리
-대지 194,211㎡ (5875평), 평당 65만 -전체 계획관리지역, 민원소지없음, 2차선도로 약 840㎡, 2차선도로 2차선도로 500m, 2차선도로에 접, 현 목장농지이며 현상은 도로로 사용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원거리
-대지 90,828㎡ (27,834평), 평당 35천원 -2차선도로에 접, 현 목장농지이며 현상은 도로로 사용
▶ 전남 보성군 결백면 수남리
-대지 2,567,157㎡ (772만 6,565평), 평당 1만 -토지전체 임도개설, 현 배나무 조림지, 80%이상 개발가능, 토질 및 전망 양호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흥리
-대지 28,186㎡ (8,700평), 가격은 협의후 결정 -차령전입 가능, 현 민원농장, 관리사무소, 화장

대표: 성봉규 (명신투신호 16-07-29)
-전. 대한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전. 한국경제연구원 이사
-전.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전.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전.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전.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전.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전.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담양군	179	197	995만	1종일반
전남	담양군	441	495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4990	1136	8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341	195	34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3365	895	4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365	189	5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95	2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95	2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4275	2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873	59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896	29	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95	297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310	195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532	495	8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837	694	8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955	89	5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346	795	5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332	1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098	2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342/797	195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895	895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900	894	4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300	3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72	695	4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924	895	8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154	195	8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936	9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349	291	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945	29	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952	495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49	895	397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198	197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9531	594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289	894	294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6798	79	5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2919	295	197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4963	395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895	895	5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142	497	9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130	595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0898	695	494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963	295	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372	494	391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424	187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429	195	895만	2종일반

해령법률경매
T: 062)430-7117 H.P: 011-629-0827 위치: 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담양군	81/711	195	5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99/1912	195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99/1912	195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174/1227	112	4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357/1042	895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02/2798	195	895만	2종일반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담양군	81/711	195	5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99/1912	195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599/1912	195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174/1227	112	4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357/1042	895	3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202/2798	195	895만	2종일반

아파트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담양군	427/513	195	8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798/1940	195	11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900/902	89	295만	2종일반
전남	담양군	1798/1711	195	895만	2종일반

신축 (광주·전남 지역)
-신축 가능함